‘충경로 차없는 거리’ 시민불편 가중

전주 객사부터 다가교까지 골목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통행 어려워 ‘볼멘소리’

전주시와 전주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은 지난 5일 전주 객사 앞 충경로 사거리부터 다가교 사거리까지 약 700m 구간 도로에서 ‘전주본색’ 행사를 가졌다.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무관〉

전북을 찾는 관광객 편의와 사람 중심의 전주 시정 실현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충경로 차 없는 거리’가 시민들의 교통불편만 가중시켰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객사 앞 사거리에서 다가교 사거리까지 충경로 600m 구간을 전면통제하고 차도를 각종 전시물과 푸드트럭, 문화행사로 채웠다.

이날 하루 차가 사라진 거리에는 전주를 찾은 3만 여명의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한옥마을과 객사를 오가며 편하게 걸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였다.

하지만 “차도를 보행자들의 거리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되돌려 준다”는 전주시의 야심찬 기획과는 다르게 차량통제 사실을 미처 몰랐던 시민들은 이동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했다.

일상을 벗어난 급작스런 차량통제로 인해 우회로를 찾던 시민들은 골목골목마다 주차된 불법주정차로 인해 오도가도 못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차 없는 거리로 인해 주변 우회로 불법주정차는 계속 불어나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켰다.

전주시 서서학동에 사는 시민 김모(42)씨는 “전주 도심을 관통하는 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든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며 “주말에 도심 주요도로를 통제하고 전시성 행사를 벌이는 발상도 문제지만 특별한 교통대책도 없이 애꿎은 시민들 교통만 방해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해냈다.

그는 또 “이미 전주시에 한옥마을과 중앙동에 차 없는 거리가 있는데도 충경로까지 차 없는 거리로 만들면 전주 구도심 전체를 시민들의 일상과는 무관한 놀이공원으로 만들자는 발상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차 없는 거리 행사는 홍보부족과 주변 우회로 확보, 불법주정차 대책 미비 등으로 급한 볼 일이 있어 차량을 타고 이동해야만 했던 시민들에게 큰 불편만 끼쳤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상수원 수질상태 조사결과 용담호 수질 Ⅰb등급 ‘좋아요’

전주시 수돗물의 상수원인 용담댐의 수질상태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은희영 본부장)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실시한 용담호 상수원수의 수질상태 조사와 용담댐 상류수계인 주자천·정자천·진안천·금강본류·구량천 등 5개 지점의 분기별 수질상태를 종합분석한 결과,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질환경기준 4개 등급 중 두 번째 등급인 Ⅰb(좋음)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맑은물사업본부는 수질검사에서 호소수의 수질지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항목인 COD(화학적산소요구량)를 비롯한 36개 전 항목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용담호내 평균 COD가 2.5ppm으로 나타났다. 상류수계의 COD는 주자천 1.7ppm, 정자천 2.0ppm, 진안천 3.0ppm, 금강본류 2.0ppm, 구량천 2.0ppm 등으로 조사됐다. 납·카드뮴·비소, 수은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류 등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COD(화학적산소요구량)가 2ppm이하이면 Ⅰa(매우 좋음), 4ppm이하이면 Ⅰb(좋음), 5ppm이하이면 Ⅱ(약간좋음), 7ppm이하이면 Ⅲ(보통) 등으로 수질등급을 결정하며, Ⅱ급수까지는 일반적인 정수처리를 통해 생활용수 공급이 가능하고, Ⅲ급수는 고도정수처리를 통해 생활용수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전주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의 상수원인 용담댐 수질을 깨끗이 보전하기 위해서는 용담댐 상류수계의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상류수계에 대한 조사결과 가장 깨끗한 수계는 인가가 적은 운일암반일암쪽에서 흘러들어오는 주자천(1.7ppm)인 반면, 오염도가 가장 심한 수계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진안읍(3.0ppm)에서 흘러들어오는 진안천인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맑은물사업본부는 광역상수도의 취수지점이 주자천 하류에 위치해있어 상대적으로 깨끗한 원수를 취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용담댐 수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인구밀도가 높은 진안읍 생활하수 처리에 많은 비용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장인 최용욱 전주대 교수는 “앞으로 용담댐의 수질상태를 보다 깨끗이 보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환경보전의식 고취와 함께 실천이 필요하다”며 “전북도와 전주시, 진안군,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이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관심과 협력을 통해 수질정화를 위한 예산을 투자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감시하는 등 수질 향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형원 전주시 수질관리과장은 “전주시에서는 그동안 용담댐 내부의 수질상태뿐 아니라 상류수계별 수질변화추이를 주기적으로 조사해오고 있다”면서 “원·정수 수질검사항목도 선진국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관련규정보다 강화한 수질조사를 통해 시민에게 공급하는 수돗물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북경찰, ‘갑질 횡포’ 특별단속 229명 검거

리베이트 수수, 112명으로 가장 많아

우월한 지위로 ‘갑질 횡포’를 벌인 파렴치범 229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7일 전북지방결찰청(청장 김재원)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펼친 ‘갑질 횡포 특별단속’기간 중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자 229명을 검거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6명을 구속했다.

이 중에는 14년 7월부터 15년 9월까지 고청군창에서 발주한 15건의 공사 수주와 240억 규모의 ‘고창세계로프리미엄 갯벌사업’의 하도급을 특정업자에게 제공하고 8회에 걸쳐 47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군의원과 뇌물을 증여한 건설회상 사장을 권력형 공직비리로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예비군 면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장을 사칭해 고향동창과 내연녀 등에게 군부대 인근 토지 매입 투자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88회에 걸쳐 4억원을 갈취한 前 예비군 중대장 역시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세부유형별로 보면 거래관계 내 리베이트 수수가 112명(48.9%)로 가장 많은 갑질로 나타났으며, 단속 블랙컨슈머 불법행위 24명(10.4%), 직장·조직 내 폭행·폭언 20명(8.7%), 사내 근로자 임금 등 착취 14명(6.1%), 직장 내 강제추행 등 성범죄 11명(4.8%), 공무원 각종 편의제공 등 공직비리 8명(3.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찰청의 단속 결과 갑질 횡포 가해자인 갑(甲)의 경우 여성(10.5%)보다 남성(89.5%)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40대(28.2%), 50대(25.8%)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인 피해자 을(乙)의 경우에도 남성(83.3%)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회사원(33.2%)과 학생(32%)이 피해를 받는 직업군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갑질 횡포의 특성인 음성화 현상을 고려할 때, 경찰 단속과 더불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피해자와 주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231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된 T/F팀을 중심으로 12월 9일까지 갑질 횡포 특별단속을 계속 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김재원 전북경찰청장 ‘삼례 3인조’ 공식 사과

김재원 전북지방경찰청장이 7일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공식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재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고통 받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의 판결문과 일련의 재판 과정에서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 사건을 정밀 분석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검토하고, 다시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를 만들어 직원들에게 교육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또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과 관련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경찰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고속도로순찰대, 관광버스 음주가무 집중단속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가 7일 관광버스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음주가무, 대열운행 행위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순찰대 9지구대는 단풍철인 10월부터 지금까지 차내 음주가무 행위를 위반한 89대를 단속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했다.

고속도로의 관광버스 음주가무 행위는 버스가 흔들리거나 버스기사의 운전을 흐트러뜨려 사고 위험이 매우 높고, 대형 인명피해로 일으킬 수 있는 위험 행위이다.

방흥 9지구대장은 “고순대 순찰차를 관광버스가 많이 왕래하는 노선에 집중 배치하여 음주가무, 대열운행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버스 내 비상탈출을 위해 비상망치 등 안전장구 비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행락철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빈집서 현금 훔친 50대 검거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7일 빈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전씨(51, 남)를 주거침입 및 절도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9월 19일 덕진구 건산로 소재의 단독주택에 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에 놓아둔 여성용 가방에서 현금 335만원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근 기자